

세차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임 홍 근

대구광역시 서구청

1.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자동차 보급대수가 1,500만대를 넘어 바야흐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제는 1가구 1자동차를 넘어 1가구 2~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가구도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운송기구가 발명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단위 : 천대)

구분	2002.1월	2003.1월	2004.1월	2005.1월	2006.1월
등록대수	13,020	14,065	14,646	14,984	15,467
증가율	---	8.0%	4.1%	2.3%	3.2%

자료 : 건설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한편,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전국 곳곳의 세차시설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에 의한 세차와 차량소유자가 직접 세차기계를 작동하여 세차하는 셀프 세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빠른 기술개발력은 세차기와 같은 새로운 기계설비를 끊임없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러한 신 기술에 대한 과세적합성을 연구·모색하고 과세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노력은 제도적, 현실적인 제약들로 기술개발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차기에 대한 과세적합성과 과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과세논의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살펴보고 세차기에 대한 과세가 조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다음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과세원칙과의 부합여부

1. 세차시설의 종류

가. 자동세차기

주로 주유소에 설치하며 자동차의 외부를 물과 세척제를 이용하여 브러쉬 또는 천을 이용한 자동기계로 세차하는 것으로 문형 또는 터널형으로 구분된다.

나. 셀프세차기

소비자가 칸막이 부스로 구분된 공간에서 세차기계에 동전을 투입하여 기계가 작동하는 일정한 시간동안 스스로 차량의 외부를 닦는 세차방식

다. 스팀세차기

스팀세차기는 소량의 물을 이용, 고온·고압의 스팀(증기)을 분사하여 세차하는 기계로 폐수 발생이 없으므로 인·허가의 필요없이 장소와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세차장비

라. 손 세차

전통적인 세차방식으로서 간단한 공구나 기계를 이용, 주로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차방식

마. 세륜기

각종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바퀴에 묻은 진흙, 토사, 먼지 등을 세척해주는 기계

2.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지방세법 제 104조의 4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7. 기타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 기지국용철탑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세차기의 과세적합성 여부

위에 기술한 지방세법상의 정의로 미뤄볼 때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이 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 이어야 하는 데 세차시설 중 자동세차기나 셀프세차기는 대개의 경우 토지에 정착되어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으로서의 필요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스팀세차기나 세륜기는 이동식으로서 토지에 정착하지도 않으며 또한 지하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도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과세요건에 적합한 자동세차기와 셀프세차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과세대상으로서의 특성 및 과세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자동세차기와 셀프세차기에 대한 고찰

1. 자동세차기의 종류와 현황

자동세차기는 현재 국내업체 4·5개, 수입제품 4·5개가 주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양에 따라 문형과 터널형으로 나뉜다.

가. 문형 세차기

자동차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처럼 생긴 세차기계가 앞뒤로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방식으로서 터널형보다 소형이며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구조는 세척제와 물을

살포하는 분사장치와 브러시로 차체표면을 닦는 세척장치, 그리고 고압공기로 차체의 물기를 제거하는 건조장치로 구분된다. Roll Over형 또는 Gate형이라고도 한다.

문형세차기는 아래 표와 같이 세분화된다.

문형	부러쉬형 (Brush)	일반형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세차기로서 좁은 공간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며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급된 세차기이다. 세차능력은 약 9~10대/H이며 가격은 5천~7천만원 정도이다.
		더블형	문(gate)을 2개 설치하여 세차부분과 건조부분을 분리시킴으로써 세차능력을 향상시킨 방식으로 최근 수요가 많은 세차기이다. 세차능력은 약 10~15대/H이며 가격은 7천~9천만원선이다.
	터치리스형 (Touchless)		부러쉬없이 물을 고압분무식으로 분사하여 세척하므로 차량에 손상을 주지 않으나 세척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최근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세차능력은 약 10~15대/H이며 가격은 8천~1억원이다.

문형세차기는 가격대가 약 5천만원~9천만원을 형성하며 설치공간은 대략 가로4m~세로10m 정도로 터널형에 비하여 세차공간을 덜 차지하므로 부지가 좁은 주유소에 주로 설치한다. 세차능력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시간당 10대~15대 사이로 터널형에 비하여 세차시간이 긴 편이다. 통상 레일길이와 비례하여 가격이 높아진다.

나. 터널형 세차기

터널형 세차기는 컨베이어형과 드라이브 트루형으로 구분되며 터널처럼 길다랗게 생긴 세차기에 컨베이어를 설치, 이 컨베이어에 자동차가 얹혀져 이동하면서 세차한다. 세차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대형이며 가격 또한 고가이다.

터널형	컨베이어형 (Conveyor)	터널처럼 생긴 세차기 내부의 컨베이어에 의해 차를 전후로 이동시켜 세차하는 방식으로 세차능력이 뛰어나고 넓은 설치공간이 필요하다. 세차능력은 약50~60/H이며 가격은 1억~2억5천만원 정도이다.
	드라이브-트루형 (Drive-True)	컨베이어없이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면서 세차기 터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수요가 거의 없는 기종이다.

터널형 세차기는 가격대가 약 1억원~2억5천만원으로 고가이며 설치공간은 가로5m~세로 20m 정도로 문형보다 세차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또 시간당 세차능력이 약 50~60대로 문형세차기보다 월등하므로 부지가 넓고 세차고객이 많은 주유소에 설치한다. 통상 컨베이어 길이와 비례해 가격이 높아진다.

다. 제작사별 주요품목 가격

제작사	형식	품명	가격(천원)	비고
동양기전	터널형	World Best204S	130,000	컨베이어 길이 13m
	문형	Duo(더블형)	90,000	레일길이 11m
		Dream	70,000	레일길이 9m
한림기계	터널형	BMC-100	125,000	컨베이어 길이 11m
	문형	Super Pax	49,000	레일길이 10m
		Super Express	63,000	레일길이 11m
한국ENE	터널형	Maxima-1000	112,000	컨베이어 길이 9m
	문형	Euros	70,000	레일길이 9m
		Fuzzy-EX	52,000	레일길이 8m
이스토발 (스페인)	터널형	TA	120,000	컨베이어 길이 10m
	문형	M4	50,000	레일길이 9m
		M12	70,000	레일길이 10m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 "거래가격"

2. 셀프세차기의 종류와 현황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거두는 비즈니스를 셀프사업이라 말한다. '셀프세차장', '셀프주유소' 등 스스로 손수하는 작업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고 돈도 절약하는 경제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셀프의 개념은 미국에선 1960년대, 일본에선 1980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경부

터 도입되어 현재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중 셀프세차는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가와 셀프산업의 발전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시행 후 나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로 인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 셀프세차의 공정

셀프세차에는 일반적으로 셀프세차기, 진공청소기, 매트세척기, 폐수처리가 필요하다.

이 중 셀프세차기는 차량의 외부를 세척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진공청소기는 차량 내부의 먼지나 오물을 제거하고, 매트세척기는 매트를 깨끗이 세척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폐수처리는 셀프세차나 매트세척을 끝마친 후 배출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나. 셀프세차기의 구성

셀프세차기는 1개의 Bay(베이)에서 차량소유자가 예비세차, 거품부러쉬, 린스, 왁스코팅 등 4단계의 공정을 이용하여 직접 세차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하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공정만을 선택하여 세차할 수도 있다. 여기서 Bay란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획’, 또는 ‘격리된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셀프세차장의 칸막이 부스 한 칸을 말한다.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다

- (1) **예비세차**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차체의 흙과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약 1분30초간 소요된다.
- (2) **거품부러쉬** : 세제가 분사되는 부러쉬를 이용하여 기름 및 묵은 때를 문질러 닦는 기능으로 약 3분간 지속된다.
- (3) **린스**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비누거품을 깨끗이 제거하는 공정으로 약 1분 30초간 소요된다.
- (4) **왁스코팅** : 액체의 물 왁스를 차체에 뿌려주는 공정으로 약 1분간 지속된다.

셀프세차기 부스 하나당 크기는 4m×5m로 약 6평이며 별도로 4평 정도의 기계실이 필요하다. 기계실에는 셀프세차기 본체 및 에어 콤푸레샤, 물탱크 등이 함께 설치되며 여기서 동력이 생산되어 세차기 부스내의 물분사기, 거품부러쉬, 회전붐대, 코인기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차가 이루어진다.

다. 셀프세차기의 종류

셀프세차기는 비교적 생산단가가 낮고 제조가 용이하여 현재 많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특별한 형식이나 규격화된 제원이 없는 실정이다. 가격은 1Bay당 평균 500만원~800만원 사이인데 선택사양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난다.

(A사 셀프세차기 가격표)

품명	펌프 수량	판매금액 (천원)	선택사양		합계금액
			온수 보일러	자동 배출장치	
CW-1130A	1	5,300	600	500	6,400
CW-2130A	2	9,700	1,100	900	11,700
CW-3130A	3	14,400	1,300	1,100	16,800
CW-4130A	4	18,800	1,600	1,400	21,800
CW-5130A	5	23,000	2,000	1,700	26,700

위의 표에서 셀프세차기의 펌프 수량이 3개란 것은 세차 부스를 3칸 만들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하다. 즉, 5Bay 구조를 가진 셀프세차장을 만들고 싶다면 펌프수량이 5개인 CW-5130A 셀프세차기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셀프세차기 가격은 펌프수량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택사양을 고려할 시 펌프수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가격은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사 셀프세차기 가격표)

품명	2BAY	3BAY	4BAY	5BAY	비고
Pro-X	14,700	21,900	29,100	39,900	기본형
Pro-XP	15,800	23,550	31,300	42,650	펌프옵션
Pro-XF	19,590	27,700	35,810	47,520	장치옵션
Pro-XFP	20,690	29,350	38,010	50,270	장치,펌프옵션

위의 B사 셀프세차기의 가격차이는 Bay당 약 700~800만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사양의 종류에 따른 것이다. A,B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셀프세차기는 선택사양에

따라 다소 가격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펌프수량당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셀프세차기 이외 세차시설을 구성하는 기계 중 폐수처리기는 약 600~800만원, 진공청소기 약 130~180만원, 매트세척기 약 140~200만원 사이에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IV. 시가표준액 결정 및 법령 개정사항

1. 시가표준액 결정

가. 자동세차기의 시가표준액 결정

자동세차기는 제조업체수가 한정되어 있고 회사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제조회사별 자동세차기의 종류 및 형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제조회사가 사라졌다거나 현재 단종된 제품 등의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정하고자 한다.

- (1) **문형** : 일반적으로 문형은 레일길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므로 레일길이 8m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문형 자동세차기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천만원으로 정하고 레일길이가 1m 증가시마다 시가표준액을 1천만원 상승시킨다.
- (2) **터널형** : 터널형은 컨베이어 길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므로 컨베이어 길이 9m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터널형 자동세차기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9천만원으로 정하고 레일길이가 1m 증가시마다 시가표준액을 1천만원 상승시킨다.

나. 셀프세차기의 시가표준액 결정

셀프세차기는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있다. 또한 일관된 종류 및 형식이 없고 제품의 가격 또한 자동세차기에 비하면 미미한 등 시가표준액을 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셀프세차기를 제조회사 종류별로 가격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로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셀프세차기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가장 간단한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셀프세차기는 제조회사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장착된 펌프수에 따라 가격이 비례하여 상승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펌프1개당 시장 최저가 수준인 500만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펌프3개의 셀프세차기라면 시가표준액은 1,5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세차부스가 3칸 있는 셀프세차장의 시가표준액은 1,500만원이라는 것과 동일하다.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적용

자동세차기 및 셀프세차기의 내용년수는 주유기와 마찬가지로 내구성을 고려할 때 10년이 적정할 것이다.

구 분	내용년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세차기 (자동·셀프)	10년	정액법	10%	0.09

2. 법령 개정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기타시설 대신에 세차시설을 7호에 신설하고 기존의 기타시설을 8호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레저시설 ~ 6. 에너지 공급시설

7. 세차시설 : 자동세차기, 셀프세차기 (단, 폐수처리기·진공청소기·매트세척기 등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8. 기타시설

V. 기대효과

2006년 현재 대구 서구 지역에 등록된 주유소 수는 39개이며 이 중 23개 업소에서 자동세차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설치비율은 58.9%를 나타낸다. 한편, 대구 서구지역 셀

프세차기 설치 업소수는 10개소로 조사되었다.

한국주유소협회에서 작성한 주유소 현황을 보면 2006.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1,789개의 주유소가 있다.

이들 업소 중 기존 자동세차기 설치업소 비율을 40%, 향후 설치예정인 업체를 60%로 가정하고 대당 취득가액을 7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취득세 부과는 1대당 1,400,000원 (= 70,000,000 × 0.02)이 되며

이를 전국 미설치업소 비율인 7,073개소 (= 11,789 × 0.6)에 적용한다면

약 99억원 (=7,073 × 1,400,000)의 취득세 증가가 예상된다.

또, 재산세는 1대당 평균 175,000원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약 12억원 (=7,073 × 175,000)의 재산세가 매년 증대될 수 있다.

자동세차기에 비해 셀프세차기는 전국적인 설치현황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세수전망이 어렵고 대당 취득가액이 낮아 세수증대효과도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업소가 증가추세에 있고 자동세차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과세자료 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VI. 결 어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세차시설도 꾸준히 증가될 것이다. 세차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세원발굴은 과표산정의 어려움, 납세자들의 반발 등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과 고민이 수반될 때 자치재정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다. 